

50년후 광주 기온 3.9도 상승...폭염일수 3배

광주기상청 '도시폭염 대응 포럼' 열대야 일수 16일→60일로 늘어 도심 바람길 고려한 도시계획을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세기 후반 광주에 재난급의 폭염이 덮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폭염(2일 이상 33도 이상) 일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최대 두 달간 열대야(최저기온 25도 이상)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과 광주시가 12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 폭염 대응을 위한 참여와 협력방안 제시'를 주제로 개최할 '제3회 도시폭염 대응 포럼'

에 앞서 공개된 '광주시 폭염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광주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2071~2100년) 최소 1.4도에서 최대 3.9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8.6일이었던 폭염 일수는 최소 30여 일에서 최대 70일을 웃돌고,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16.8일에서 20~60일로 늘어난다.

이는 2100년 기후를 예측하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부터 현재 추세대로 배출하는 경우까지 4단계로 나눠 기후변화를 예상해보는 방식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은 '광주시 폭염 현황

및 전망'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로 2030년대를 꼽았으며,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화 현상이 최저기온 상승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폭염과 적응정책 추진사례'를 통해 국내외 폭염 완화 선진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열섬현상(도심 중심부가 다른 지역보다 3~4도 높은 현상)을 재난위험요인으로 분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연방건축법에 따라 바람길을 고려해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에 가까운 구릉부에는 신규 건축을 금지하고, 바람통풍로 지정된 곳에는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물 간 간격은 최소 3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심 내에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공기담을 만들어 대류할

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을 낮춘다.

강원도 춘천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로 한가운데에서 물이 분사되는 '도로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증발을 통해 열을 낮추는 동시에 도로 청소와 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보행도로에는 열반사 도료를 사용해 지표면의 반사율을 높이고, 소양강·의암호·춘천댐에서 도심으로 통하는 바람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 연구위원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고 녹지공간 확대, 빗물 순환형 지표면 개선,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구 생태마을 만들기' 광주천 청소 11일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천에서 열린 '동구 생태마을 만들기' 행사에서 학동 주민 자치위원들과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비닐봉투 규제 대상업소

동구, 154곳 집중점검

광주시 동구는 "오는 28일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규제 대상업소 154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65㎡ 이상 대규모 점포·슈퍼마켓 81곳과 제과점 73곳 등이다.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165㎡ 미만 점포·슈퍼마켓도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동구는 위반사업장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단 날개로 판매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아패류, 정육, 두부 등 수분이 함유돼 있거나 누수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방통대 17일~7월 16일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오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4개 단과대학 23개 학과 신입생 3만 9592명으로, 편입생은 7만 7298명이다. 입학 신청은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우편이나 학교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이며, 등록 기간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14:28
해질 19:47 달지기 01:59

햇빛 가리는 구름

구름 많고 오후 한 때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16/27	보성	구름많음	13/25
목포	구름많음	16/24	순천	구름많음	17/26
여수	구름많음	18/24	영광	구름많음	14/24
나주	구름많음	14/27	진도	맑음	14/24
완도	구름많음	16/26	전주	구름많음	15/27
구례	맑은 후비	15/27	군산	맑음	15/24
강진	구름많음	15/26	남원	소나기	15/27
해남	구름많음	14/25	축산도	맑음	16/23
장성	구름많음	14/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1.5	북동~동	1.0~1.5

◇ 생활지수

- 주의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26	09:40
15:14	22:23	
여수	11:02	04:40
	23:32	17:39

◇ 주간 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17/29	16/29	18/28	18/29	19/29	19/29	19/29

광주시교육청 학교 친일잔재 조사 8월까지 마무리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8월까지 광주지역 각급 학교 친일잔재 조사를 마치고로 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설명회'를 열고 각급 학교에 오는 7월 12일까지 친일잔재 학교 상징물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초 자료가 모이면 오는 8월까지 교육현장의 친일잔재 조사를 마친 뒤 올해 중 청산하거나 다크 투어리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연말에는 친일잔재 청산 성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친일 자료를 교육계 구성원들이 공유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친일파가 득세·출세하고 정의의 편에서 서서 손해를 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억압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숨 쉴 수 없게 된다"며 "늦었지만, 친일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직업계고에 전남 노무사 지정 위촉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전남 노무사를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권익보호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직업계고 전남 노무사 위촉식'을 열고 노무사 16명을 위촉했다.

노무사들은 전남지역 47개 특성화·마이스터고를 나눠 맡아 현장 실습생 안전과 권익보호 활동에 나선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학생들을 대

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또 현장실습에 참여할 선도기업 발굴과 지원 컨설팅, 운영 실태지도점검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현장실습·취업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대우 등 권리구제도 진행한다.

이기봉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4개국 70명...세계 심장학 명의들 광주 온다

13~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국제심장중재술심포지엄

전 세계 심장학 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제17차 광주국제심장중재술심포지엄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주관(총괄 책임자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우심재단 이사장)으로 매년 6월 열리는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심장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심장중재술과 강

연·중재 발표 등을 통해 최신 지식을 교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중국·일본·영국·독일 등 14개국에서 70명의 해외 심장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참석자들이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고려대병원·순천향의대·이화여대 등 대형병원 의료진과 기초 및 임상 연구자 등 총 700여 명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국제심장중재술심포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심장중재술 장면을 학술대회장과 실시간 연결해 참석자들이 시

연을 직접 보면서 토론하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남대병원에서 10명의 환자를 시술하고, 중앙대학교병원·서울성모병원·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각각 2명씩 시술하는 장면을 생중계 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심장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한편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연간 3000여 건의 국내최대의 심장중재술, 1500여 편의 논문, 80여건의 저서, 60여건의 특허, 3200여 건의 세계 최다 동물 심도자 실험 등 세계적인 진료 및 연구 업적을 보여 주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